

구로사와 아키라와 원폭 영화

<산자의 기록(1995)>과 <8월의 광시곡(1991)>을 중심으로

일본 문학과 영화 기말 보고서
2014102556 연극영화학과 조희연

I. 서론

구로사와 아키라는 흔히 미조구치 겐지, 오즈 야스지로와 함께 일본의 3대 감독으로 꼽히며 1950년대 일본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거장이기도 하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출생년도는 1910년, 사망년도는 1998년으로 그의 생애 자체가 시기적으로 최근 100년간 일본의 근현대사와 밀접하게 맞물려있으며 따라서 몇몇 작품에서도 그가 일본 전쟁역사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다. 그가 남긴 많은 작품 중 일본의 원폭피해와 관련된 작품 두 개를 비교 및 대조하여 분석해보았다. 일본에는 원폭영화, 원폭문학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원폭피해는 많은 작가와 감독들에게 귀감이 되는 주제이자 사건으로 자리잡아있다. 원자폭탄 투하 사건은 전범국인 일본의 가해 사실을 희석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일본정부의 이중성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고통이 묵인 당한 것에 대한 전쟁고발로도 소재를 제공한다. 또한 지구상 유일한 원폭피해국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참상과 인권 문제에서부터 인간과 죽음을 관통하는 철학까지 다양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중 이에 관련된 작품으로는 <산 자의 기록(1955)>, <꿈(1990)>, <8월의 광시곡(1991)>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꿈(1990)>은 단편 영화들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로 역사적 사실로서의 원폭피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판타지로서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¹⁾ 반면 <산 자의 기록(1995)>과 <8월의 광시곡(1991)>은 실제 원폭의 피해자를 중심 캐릭터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고통과 후유증, 주변인의 시각이 드러나는 영화로 36년의 간격으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전후와 현대의 시각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두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원폭에 대한 감독의 사유 방식을 비판하고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써의 원폭장르의 가능성과 예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산 자의 기록(1955)>과 원폭 트라우마

<산 자의 기록(1995)>은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부터 정확히 10년 후 개봉한 작품으로 원폭 피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나카지마가 그의 가족들과 대립하는 것이 주요한 갈등 구조이다. 극중 나카지마는 공장장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으며 가족들 모두 나카지마의 공장일

1) 김호경,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原爆영화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2017, 11p

을 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나카지마는 원자폭탄으로부터 안전한 브라질로의 이민을 계획하며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이사를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나카지마의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하며 브라질로의 이민을 반대하고 그의 재산권 역시 빼앗으려 한다. 이들은 나카지마의 원폭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며 원폭문제 보다는 당장 일본 사회에서 먹고 사는 현실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사는 현재 운영중인 공장과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나카지마의 재산 상속에 대한 것들이다. 급기야 이들은 아버지인 나카지마의 재산 처분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걸며 승소하기에 이른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나카지마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호소하지만 누구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국 그는 공장을 방화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에 그가 ‘아프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나카지마를 정신병원에 수감하며 독방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 나카지마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구로사와 아키라는 <산 자의 기록(1955)>의 제작의도에 대해 “모든 인류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카지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에서의 가족들처럼 실제 다수의 일본인은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의 시선에서 보편적 휴머니즘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2)극단적으로 표현된 원폭의 공포에서 당시 일본관객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이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작품 중 유일한 적자라는 기록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만큼 50년대 일본에서 원폭에 대한 문제인식은 회피와 비공감으로 대표될 수 있다.

2) <8월의 광시곡(1991)>에서의 피해자 묘사

<8월의 광시곡(1991)>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후반기 작품으로 마지막 작품인 <마다다요(1993)> 바로 직전에 제작한 영화이다. 개봉 전 헐리우드 배우인 리처드 기어의 출연과 그의 캐릭터로 화제를 일으킨 바가 있다. <8월의 광시곡(1991)>은 나가사키 원폭의 피해자인 할머니 카네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기억 그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영화의 중심인물은 할머니로 대표되는 전쟁을 겪은 구세대와 원폭 피해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직접인 가해자를 상징하는 미국인(리처드 기어)의 등장도 구로사와의 다른 원폭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주인공인 아이들, 즉 전쟁을 겪지 않은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이들은 처음엔 원폭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공감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폭의 피해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원폭의 참혹함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원폭과 전쟁에 대해 잊어가는 일본 현세대의 모습을 상징하며 가족들이 할머니의 상처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가 원폭에 대해 가져야 할 경각심과 역사적 태도에 대해 지적한다.

영화에서는 리처드 기어가 할머니인 카네에게 원자폭탄을 터트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소시민 희생자를 앞세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라는 사실을 흐리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감독은 “미.일의 관계를 영화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폭탄을 던진 사람들이 나쁜 인간들이 아니며, 우리 또한 희생자가 아니다. (중략) 나는 모든 전쟁을 규탄했을 뿐이다.” 라고 의도를 밝혔다.

2) 이시준, 『구로사와 아키라의 《산 자의 기록(生きものの記録)》에 관한 고찰- 흥행의 실패요인과 제작의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48집, 2018, 268p

미국 배우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3) 분석과 비교

<산 자의 기록(1955)>과 <8월의 광시곡(1991)>은 원폭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 영화 내에서 평가받는 방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산 자의 기록(1955)>의 나카지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물로 묘사되며 끝내 공감 받지 못하는 소수자에 머무르는 한편 <8월의 광시곡(1991)>의 카네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연장자이자 존경과 연민의 대상으로 연출되었다. 또한 <산 자의 기록(1955)>에서의 원폭은 일본 내에서의 갈등 및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로 비교적 미시적으로 다루어졌으나 <8월의 광시곡(1991)>은 ‘가해자’로서의 외부인인 미국인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사죄하는 장면이 있으며 원폭 피해의 추모행렬을 보여줌으로써 원폭을 보다 확장된 시선에서 그려낸다. <산 자의 기록(1955)>에서의 나카지마가 원폭에 대해 느끼는 공포는 미국이나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보다는 수소 폭탄 자체에 대한 공포이며 이에 대처하는 다수의 무관심은 원폭의 위험성에 체념한 것이다. <8월의 광시곡(1991)>처럼 미국이 직접적인 가해자로 등장하거나 언급되지는 않으나 결국 소수자의 공포를 조장한 미국이 문제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전개한다.

어린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 <산 자의 기록(1955)>에서 나카지마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갓난아이를 보여주며 “이 아이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가족을 설득하기 위한 소극적 장치로 사용한 반면 <8월의 광시곡(1991)>에서는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의 미래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원폭의 역사를 후세대에 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주인공을 소시민으로 설정하여 피해자로서만의 일본을 강조했다는 데에서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 <산 자의 기록(1955)>에서 가장 객관적인 서술자라 할 수 있는 치과의사 하나다는 나카지마를 원폭의 피해자로 연민하며 그가 느끼는 공포가 정말로 과장된 것인지 회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8월의 광시곡(1991)>에서 시점을 주도하는 아이들은 젊은 세대가 원폭의 피해를 잊어버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불쌍하다는 대사를 하며 피해자로서만의 일본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세계 2차 대전의 발생 원인과 원폭 피해 바깥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은 언급되지 않으며 원자폭탄 투하라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시선에서 일본은 피해자, 미국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고수한다. 전쟁의 거시적인 흐름을 배제한 채 소시민의 희생과 트라우마만을 조명하는 연출로 일본을 비롯하여 일본 외부의 관객에게서도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III. 결론

원폭 문제와 같이 가해자와 희생자의 정의가 불분명한 사건은 분석과 고찰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한 태도가 필요하다. 일본이 전범국인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원폭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전시상의 마땅한 타격쯤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초이자 유일한 피폭국의 피해를 고찰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인류가 전쟁에 대해 보다 성숙한 사고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되짚어야 할 단계이다. 원폭문학, 원폭영화라는

장르가 일본 내에서만 성행하는 것은 일본이 피해자로 부여받은 당사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가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일본 외부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원폭 장르의 대다수 작품은 주로 원자 폭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며 전쟁에 대한 인류의 성찰을 이끌어내곤 하는데 이 같은 피해 사실에서 침략의 역사를 생략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본의 독자로 하여금 내셔널리즘을 답습하도록 한다는데 모순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원폭피해가 일본 외부에 비릇한 거시적인 범위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하고 세심한 시선으로 묘사된 작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오에 겐자부로 *의 <히로시마 노트(1965)>*를 가능성의 한 예시로 주목할 수 있다. *<히로시마 노트(1965)>*에서의 오에의 사유는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을 언급하고 이를 비판한 것은 아니나 원자폭탄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면서도 이를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 섬세한 논의 전개와 객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작품이다. 그는 책을 통해 전쟁과 원폭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함과 동시에 오키나와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역시 희생자로서의 예시로 들며 원폭피해가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그의 책은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회고로 이루어져있지만 소시민의 트라우마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사실적 기록과 통계적 수치를 통해 되짚는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확장된 휴머니즘을 구축하게 하는 르포르타주이며 영화나 문학을 비롯한 픽션(fiction)에서도 원폭장르에 요구되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감독의 주관적인 연출이 개입되는 픽션 작품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해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에서와 같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사유'로 읽히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영화 *<랜드 오브 마인(Under sandet, 2015)>*의 경우 전범국인 나라에서 제작된 세계 2차 대전의 독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에의 르포르타주와 같은 섬세한 사유 방식으로 전 세계 많은 관객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범국에서 제작한 전쟁 영화는 그 소재와 방식이 어떠한 우익 영화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인 반면 *<랜드 오브 마인(Under sandet, 2015)>*은 당시 연합국이었던 국가들에서 흥행하기도 하였으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외국어영화상 후보로도 선정되었다. 희생자를 묘사하는 과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섬세한 방식을 끌어내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전쟁과 역사를 거시적으로 마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타의 사례를 바탕으로 원폭피해를 다루는 많은 작품들이 보다 성숙한 시각을 통해 모든 이의 공감과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발전적인 접근을 꾀하길 기대한다.

IV. 참고문헌

김호경,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의 原爆영화에 관한 고찰』, 송실대학교 대학원
일본어일본학과, 2017, 11p
이시준, 『구로사와 아키라의 《산 자의 기록(生きものの記録)》에 관한 고찰- 흥행의 실패요인
과 제작의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48집, 2018, 268p
오에 겐자부로, 이해숙 역해, 『히로시마 노트』, 삼천리, 2012